

# “5년간 삶의 길라잡이”

창간독자 인터뷰 이수환 월곡중교장

### “신문 펼치면 마음 다스리는 지혜 가득” 일주일내내 읽고 또 읽고...영구구독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는 등 상황이 몹시 안 좋을 때 마침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을 만났습니다. 지면 곳곳을 채우고 있는 글로써와 같은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제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괴로울 때 신문을 펼쳐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94년 10월 15일 창간호 아닌 그 이전 창간호부터 5년째 한주도 빠짐없이 ‘현대불교’를 보고 있는 창간독자 이수환(52·월곡중학교 교장)은 신문을 구독하고는 맘이 들어 아예 영구독자가 돼 버렸다.

이 교장은 “사시(社是)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내건 것이 참 좋았습니다. 현대

불교가 나오기 전에도 불교계 신문을 읽었지만 종단 정치와 스님들의 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현대불교’는 신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풍부해 우리 같은 재가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신행을 도와주는 등 처음부터 돋보였습니다. 5년을 회고했다. 이교장이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난은 ‘수행한담’, ‘불심시심’, ‘과학과 불교’ 등.

남들은 월요일을 말하지만 이교장은 신문이 도착하는 월요일이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신

문이 도착하면 일주일 내내 읽을 거리가 된다.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이고 좋은 기사는 다시 읽을 수 있게 밑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세심히 읽는다. 감명깊은 기사를 오래 모으기도 하고 연재물은 연재물대로 종류별로 나누고, 시의성 기사는 기사대로 스크랩해 만든 스크랩북만도 13권.

매주 신문에서 얻은 유익한 기사를 메모지에 적어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되새김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료로 쓰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교육관을 갖게 되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사람됨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고자 하고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교육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교장은 바쁜 업무 틈틈히 현대불교신문에 안내된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에도 따라가 참선도 해보고, 생명나눔캠페인에도 동참하며 신심을 북돋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는 물론 세상을 읽는 정겨운 창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이수환 교장은 창간정신이 10년, 20년뒤에도 고스란히 지켜지고 언제나 독자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부처님 전도사가 되어주길 당부하며 창간 5주년을 축하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매주 월요일에 도착하는 ‘현대불교’를 일주일동안 읽고 또 읽는 이수환교장. ‘현대불교’ 기사를 모은 스크랩북이 5년 동안 13권이 넘는다.

## 뉴스 & 뉴스

### 김포 장애인보호센터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지난달 말 경기 김포시에서 위탁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수탁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주간보호와 더불어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놀이 및 교육활동, 취미생활, 사회통합훈련 등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관음중 창종 35주년 법회

관음중(총무원장 홍파)은 4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창종주 태허스님의 탄신 95주년 대례제와 관음중 창종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대례제와 기념법회에는 관음중 승정 스님과 총무원장 등 중남 지역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 조동종 새종정 지명스님

조동종 총무원(원장 학부)은 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단간부스님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정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회 종정에 윤지명스님(청원사 주지·시진)을 추대했다. 또한 이날 승정원장에 한춘담스님(마하사 주지), 승정원 부원장에 최원봉·장수환 스님, 호법원장에 최호산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조동종은 8월 14일 일찍한 전종승 운사스님의 49세를 1일 등촌동 용천사에서 종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

이경숙 기자

### 조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조계사(주지 지홍)는 19~21일까지 3일간 경내에서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19일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온가족 108배 철야 정진법회’가 대웅전에서 열리며, 20일 오후에는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를 정소하는 ‘보살 실천 대회’를 갖는다. 또 19~21일 3일동안 점심공양시간에는 108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108명 발우공양’이 법당에서 진행된다.

한영우 기자

### 심인당 2곳서 경노잔치

진각종 서울 밀교심인당(주교 회정)과 대구 시경심인당(주교 지광)은 9월 30일과 1일 각각 경노잔치를 베풀어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무료건강검진을 펼쳤다.

이경숙 기자

##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착공

### 14일 고양시 식사동에...2003년 초파일 개원예정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4일 오후 2시 고양시 식사동 병원 건립부지에서 의과대·한의과대 건축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을 가졌다.

LG건설이 시공할 병원은 총 3만여평 부지에 건평 2만7천여평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2년 10월 건물 완공에 이어 2003년 부처님오신날 개원한다. 병상은 한방과 양방이 2:8로 적절히 배분되며 △성인병과 노인

병 전문 클리닉 △진료시스템과 연계된 종합건강센터 운영 △한지중심의 의료 복지시설 및 진료 체계 갖춘 국제화전선상 개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병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비의 벽돌 한장쌓기 운동’, 대각전에 원불을 봉안하는 ‘만불불안조성 사업’과 후원의 밤 행사, 동국사랑저금통기운 등 등을 펼쳐 410여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ARS 7000-119(1통화에 5천원)를 개설, 1달만에 1천여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성과를 거뒀다. 병원건립 기금 조성사업에 동참자를 위해 △정기간담진단서비스 실시 △진료비 감면 △주치의의 배정 △임원 우선권 △영양실 이용 혜택 △49세 불행 등의 각종 예우방안도 마련했다.

김지연 기자

### 천태종 복지재단 정부인가

이시장 언덕스님은 “이주외가 판매해 가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복지사업이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2003년 개원될 동국대 일산 불교종합병원 조감도.

### 김제구미시청 불자회 동서화합 교류

경북 구미시청과 전북 김제시청 공무원불자들이 정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시청 공무원불자회인 연우회(회장 배경춘)는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 초청으로 2일과 3일 이틀동안 구미시를 방문해 춘향전을 관람한뒤 3일 금오산 법성사에서 동서화합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연우회는 이어 금오산등반을 한 뒤 신라최초의 사찰인 도리사와 신라불교 발상지인 도개면 모래장을 순례했다. 구미시청불자회도 연우회 방문에 대한 답답으로 9일과 10일 김제시를 방문해 금오산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 뒤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영호 기자

### 상주에 승려노후시설 세운다

예천 연꽃마을 빠르면 내년착공

경북 상주에 스님들을 위한 대규모 노후복지시설이 건립된다. 현재 스님들을 위한 노후복지시설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승려노후복지발전에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법인 예천 연꽃마을(이시장 정안)은 최근 경북도에 승려노후복지시설 보립원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등을 포함한 사실성추진기사를 접수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예천 연꽃마을은 이를 위해 상주에서 40분 거리의 하남면 평

은 2리에 이미 5만여평의 대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경북도의 신속인가와 국고지원 예산편성 등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01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예천 연꽃마을은 스님 1백50여명과 일반인 등 모두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스님은 “84년 예천 연꽃마을을 설립해 불교복지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줄곧 스님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보립원이 건립되면 승려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작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코르드나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 유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어머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정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무월경, 불임,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체형 사례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다음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되는 증상(○) 미심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어두움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를 올라간 것 같다.
  14. 말뚱이 길러지거나 트고 글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 신식 감정콩 ‘金檀花’화

“에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린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 등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대보다 더 쓰러지니까!”

꽃나무와 소나무의 꽃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콩,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꽃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감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조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콜릿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 번, 내지 세 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궜다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액성 기간이 죽어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연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꽃이 한피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꽃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제형 사례

저희 금단화를 복용하여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드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심비한 체험이 많았지만 지면상 우선 효과를 본 두 분만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10년 이상된 만성 8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2월 부터 금단화를 복용한 후 이번 8월 초에 종합검사를 해 보았더니 간염균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지금은 회복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가족은 신기하여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늘 남편의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제 건강할 모습을 보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동 승현엄)

저희 남편은 혈압이 너무 높아 7년째 병원에 다니며 체크를 받고 약을 늘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단화를 복용한 후 4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후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습다.

그밖에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늘 신경통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몸 상태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금단화는 저희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김민숙)

상담문의 ☎ (02) 3437-8282